

The Gospel of Mark

Sermon 75 – Sermon Notes

Title: “He is risen”

Scripture: Mark 16:1-8

Date preached: March 24th 2024

Scripture: Mark 16:1-8

1 Now when the Sabbath was past,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ought spices, that they might come and anoint Him. **2** Very early in the morning,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came to the tomb when the sun had risen. **3** And they said among themselves, “Who will roll away the stone from the door of the tomb for us?” **4** But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olled away—for it was very large. **5** And entering the tomb, they saw a young man clothed in a long white robe sitting on the right side; and they were alarmed.

6 But he said to them, “Do not be alarmed. You seek Jesus of Nazareth, who was crucified. He i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7** But go, tell His disciples—and Peter—that He is going before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as He said to you.”

8 So they went out quickly and fled from the tomb, for they trembled and were amazed. And they said nothing to anyone, for they were afraid.

1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사 두었다. 2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3 “무덤 입구를 막아 둔 돌을 누가 굴러 줄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4 그러나 가서 보니 그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5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지 않겠는가! 여자들이 그를 보고 놀라자

6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자리이다. 7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알려 주어라.”

8 여자들은 무서워 떨며 정신 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겁에 질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Sunday. As I'm sure you will recall we spoke about Jesus' burial.

It was 3pm on the Friday of Passion week when Jesus breathed His last and died. The sabbath was just three hours away. Remember that from the Jewish way of reckoning a new day began at sundown (approx 6pm). If Jesus is to be given a proper burial it must be done quickly. Normally, the Romans left criminals, especially those condemned for treason to hang on the cross until they rotted, and literally fell off. This was intended to serve as a warning to others, “This same thing could happen to you if you rebel.” However in Judea they appear to have acquiesced to the wishes of the Jews. They did not want to have bodies hanging on a cross as they prepared for the sabbath. This was why the legs of the two robbers hanging alongside Jesus were broken. They wanted to quicken their deaths, so they could be taken down and disposed of. This was not necessary for Jesus. When they came to check on Him He had already died. A thrust of a spear into His side confirmed this.

The issue then became if Jesus was to be given a proper burial who would step forward and claim

His body? We know that the disciples have fled and are presumably in hiding somewhere in Jerusalem. We also know that some of His female followers were present at the crucifixion. But this was not really the job of women in the first century.

The person who does come forward; Joseph of Arimathea is surprising in a number of ways. The first thing worth noting is that this is the first time he is mentioned in Mark's gospel. He appears briefly in connection with the Lord's burial and vanishes almost as quickly afterwards. The second thing that makes Joseph interesting is his position in society. He was a prominent member of the Sanhedrin. This would have made him an important and notable man in Israel. I suppose we might compare him to a member of parliament, or a high ranking government official today. People would have known who he was. This means that he was a member of the council who had met and determined to find Jesus guilty. Joseph however had not agreed with this decision. Luke tells us that he was a good man who sought after justice. We don't of course know whether he spoke up in support of Jesus at the trial or whether he disagreed, but kept silent.

So Joseph is a surprising person to come forward and want to claim Jesus' body. To do so took great courage. It also cost him materially in a number of ways. In order to give Jesus a decent burial he had to acquire various material things (linen and spices). He also had to willingly give up, albeit temporarily his own tomb. We should also not overlook the fact that in handling a dead body he was making himself ceremonially unclean. According to Mosaic law he would be unable to celebrate the special passover feast. Why would he willingly do all of this?

In John's gospel we learn the reason for this. We are told that he was a secret disciple of Jesus. Mark tells us that he was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He was a good Jew, a person we would describe today as being a Messianic Jew. This means he was a person of Jewish heritage who had put his faith in Jesus as the messiah. So like all true disciples of Christ he was ready to give up all he had in order to faithfully serve his king.

As I said before there was much to be done in the short time available. The first thing to do was to retrieve Jesus body. In order to do this Joseph needed Pilate's permission. Pilate we learn was surprised to hear the Jesus had died so soon. He calls the centurion who confirms this to be the case. Pilate grants Joseph the right to take down and bury Jesus body. Assisted by Nicodemus Jesus is taken down and ritually prepared for burial. Due to the time constraints the body was not washed. This would normally be the first thing done following death. He was however wrapped in linen as was the custom of those times. There is no mention of anointing in Mark's gospel though John does mention it taking place. The neglect of both washing and anointing provide the motivation for the women to visit the tomb on Sunday morning. They wanted to perform these important rituals for Jesus. If we understand that these rituals were done by Joseph and Nicodemus as John says, then we can interpret the women's desire to anoint Jesus as an act of loving devotion. Jesus body is then transported to the tomb. This was hewn out of rock which strongly implies that it was the burial place of a wealthy man. Poorer people made do with ledges or shelves chiselled from the rock. We also know that the tomb belonged to Joseph and had not been used. Once Jesus' body had been placed inside a large circular shaped stone was rolled across the entrance. This ensures two things. Firstly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enter the tomb from outside. We also know that a Roman guard was placed outside (Matt 27:65-66). Secondly it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to move the stone from the inside. So to put it simply, no one would be able to get into, or out of that tomb. At least that's what the Jewish authorities think.

The final thing we mentioned last week was that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ames saw where Jesus body had been laid. This detail is important because it affirms that they knew where Jesus body had been buried. They would not make an error and go to the wrong tomb by mistake.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what happened when these women came to the tomb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주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장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신 때는 고난주간 금요일 오후 3 시였습니다. 안식일이 이제 세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새로운 날은 일몰(대략 오후 6 시)에 시작됩니다. 예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려면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은 범죄자, 특히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시신을 썩어서 떨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반항하면 너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뜻을 받아들이 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매달린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을 앞당겨 시신을 서둘러 처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확인하러 왔을 때 그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으로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적절한 장례를 치르기위해 누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쳐 아마도 예루살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 중 일부가 십자가 처형 장소에 함께 있었지만 실제로 1 세기에 이런 일들은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요구를 자청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인데 그는 여러 면에서 놀라운 인물입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그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주님의 장례와 관련하여 잠시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 더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그의 지위입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저명한 회원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지위에 견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유죄 판결을 결정한 공의회 의원이었지만 그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가 정의를 추구하는 선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그가 재판에서 예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유죄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침묵을 지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물질적인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품위 있게 장사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마포와 향료)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자신의 무덤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가 시체를 만짐으로써 자신을 의식적으로 정결치 못하게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기꺼이 이 모든 일을 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늘날 메시아주의 유대인(Messianic Jew)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처럼 선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인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들처럼 그도 왕을 충실히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짧은 시간 안에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시신을 회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는 백부장을 불러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려 장사하도록 허락합니다.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 예수의 시신이 내려지고 의식에 따라 장례 준비를 합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시신은 씻겨지지 않았습니 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망 후 가장 먼저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습대로 아마포로 그분의 몸을 감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름부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요한은 기름부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씻음과 기름 부음이 소홀히 행해진 것은 여인들이 일요일 아침에 무덤을 방문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이러한 중요한 의식을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이러한 의식이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 행해졌다면, 예수께 기름을 바르려는 여인들의 소망은 사랑의 헌신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의 시신은 무덤으로 옮겨집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은 부유한 사람의 매장지였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위를 파서 만든 선반을 사용했습니다. 그 무덤은 요셉의 것이었고 사용되지 않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그 안에 안치한 후 커다란 원형 돌을 굴러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보장합니다. 첫째, 외부에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로마 경비병이 밖에 배치되었습니다(마 27:65-66). 둘째, 내부에서 돌을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그 무덤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유대 당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에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그들이 예수의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고 있었음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실수로 다른 무덤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 첫날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Now when the Sabbath was past,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ought spices, that they might come and anoint Him. 2 Very early in the morning,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came to the tomb when the sun had risen.

As I have explained before the Jewish day lasted from sundown to sundown. So Friday at 6pm was the beginning of the sabbath that ended at 6pm on Saturday. The events that we are reading about here took place very early, around sunrise on Sunday. Why you might ask did the women not go sooner? Well it was most probably for very practical reasons. It was too dark. It was therefore unsafe or unwise for unaccompanied women to go during the hours of darkness. Had they decided to go when it was night they would have needed to carry lanterns which would have attracted unwanted attention.

So very early on Sunday, perhaps between 6 and 6:30am whilst it was still dark they set off for the tomb arriving just as it became light. Mark tells us that it was two Mary's who had observed where Jesus body had been placed accompanied by Salome. She was last mentioned as being present at the crucifixion (Mark 15:40)

When we compare the gospel accounts we see some minor differences regarding which women went to the tomb. Luke mentions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Joanna, and others with them (Luke 24:10). Matthew names just the two Marys (Matthew 28:1). John only mentions Mary Magdalene by name (John 20:1). What are we to make of these discrepancies? The most likely explanation is that the gospel writers are simply mentioning the most prominent members of the group of women that went to the tomb. It would be rather like someone asking you who attended church on Sunday. You might say, "Well Jim, Sam and Penny were there." Obviously so too were other people but you are just naming a select few from a larger group. That seems to be

what's happening here.

Why are these women going to the tomb? Their purpose is to anoint the body of Jesus. To do this they would have brought either herbs such as olive, laurel, palm and cypress, perfumes or fragrant oils. It was the Jewish custom to bury the dead quickly. Bodies would be buried within 24 hours of death. They would then begin to deteriorate quickly in the Mediterranean heat and the smell would be terrible. Therefore the anointing was designed to try and offset this stench.

Before moving on let us just pause for a moment to fully appreciate what their actions meant. Think carefully. Are these women anticipating a resurrection? Are they expecting to find an empty tomb? Clearly not, they are going with the intention of anointing a corpse. So even though the Lord Jesus had frequently prophesied that he would rise from the dead (Mark 8:31; 9:31; 10:34) they lacked belief that it would happen. So although we laud their faithfulness and devotion we must also note their lack of belief.

Let us find out what happened when they arrived at the tomb.

1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사 두었다. 2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유대인의 하루는 일몰부터 그 다음 날 일몰까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는 토요일 오후 6시에 끝나는 안식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일요일 해가 뜰 무렵,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왜 여자들이 더 일찍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실질적인 이유 때문이었겠죠. 너무 어두웠을 것입니다. 동반자 없이 여인들이 어두운 시간에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가기로 결정했다면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 있는 등불을 가지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주 이른 아침, 아마도 오전 6시에서 6시 30분 사이, 출발할 때는 아직 어두웠지만 도착할 때에는 밝을 시간에 무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시체가 놓인 곳을 목격했던 두 명의 마리아가 살로메와 함께 무덤에 갔다고 말합니다. 살로메는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다고 이전에 언급되었습니다(막 15:40).

복음서 기록을 비교해 보면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 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안나 및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누가복음 24:10). 마태는 두 명의 마리아만 기록합니다(마태복음 28:1).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언급합니다(요한복음 20:1).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복음서 작가들이 무덤에 갔던 여인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들만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 당신에게 일요일에 누가 교회에 왔는 지 묻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짐, 샘, 페니가 거기 있었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몇 명만 거명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들은 왜 무덤에 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갔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월계수, 야자나무, 사이프러스 같은 허브, 향수 또는 향유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빨리 장사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매장합니다. 지중해의 열기 속에서 시신은 빠르게 부패하고 악취가 심할 것입니다. 기름부음은 이 악취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그들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빈 무덤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자주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막 8:31, 9:31, 10:34) 그들은 그 일이 실로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신실함과 헌신을 칭찬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점도 지적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 알아봅시다.

3 And they said among themselves, “Who will roll away the stone from the door of the tomb for us?” 4 But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olled away—for it was very large.

As they are walking towards the tomb the women are asking a very practical question. They had seen the large stone rolled across the entrance. They wondered who might move it for them. The entrance to most ancient tombs was actually quite small measuring about only about 3 to 4 feet in height (90-120cm). The circular stone that blocked the entrance may have weighed anywhere from 900-1800 kg. That's a heavy stone! It would have required a couple of strong men to roll it aside. Understanding that detail provides a very good refutation to the silly idea posed by some that Jesus revived in the tomb, rolled the stone aside and walked out.

No, Jesus was dead and even if He hadn't been dead the stone was too heavy to move. The women apparently did not know about the seal that had been put on the stone or the Roman guard that had been posted. This had taken place after they had witnessed Jesus being buried and then left the area. We read about this in Matthew's gospel.

65 Pilate said to them, “You have a guard; go your way, make it as secure as you know how.” 66 So they went and made the tomb secure, sealing the stone and setting the guard. (Matthew 27:65-66)

The sealing of the stone was interesting. A cord would have been placed where the stone meets the rock-face, and wax was poured over the seam. No one would have been able to move the stone without breaking the wax seal. The Imperial Roman seal was sign of a authentication. It proved that the tomb was occupied, and the power and authority of Rome stood behind the seal. Anyone found breaking or tampering with the Roman seal would be arrested and executed. This is strong evidence against the idea that Jesus' disciples rose up and took Jesus body by force. Are we to believe that this dispirited group of men rallied together, overpowered professional Roman soldiers, broke an imperial seal and stole Jesus body. It's an utterly preposterous suggestion.

As the women approach the tomb they get a shock. The large entrance stone has been rolled aside. The tomb is open. Imagine what went through their minds. We know they weren't anticipating a resurrection so what did they think? The obvious thought is that someone had come and taken the body. What a shock this must have been. None of us would like the memorials, tombs or gravestones of our loved ones to be messed with or desecrated.

Let's discover what happens next.

3 “무덤 입구를 막아 둔 돌을 누가 굴려 줄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4 그러나 가서 보니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여인들은 매우 실용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입구를 가로질러 커다란 돌이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그것을 옮겨줄 지 걱정합니다. 대부분의 고대 무덤 입구는 실제로 높이가 약 3~4 피트(90~120cm) 정도로 매우 작았습니다. 입구를 막는 원형 돌의 무게는 900~1,800kg 정도였습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그것을 옆으로 굴리려면 두 명의 강한 남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이해하면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돌을 굴린 후 일어나셨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비록 그분이 죽지 않으셨더라도 돌은 너무 무거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돌 위에 봉인된 인장이나 배치된 로마 경비병에 대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예수께서 장사되는 것을 목격하고 그 곳을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65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숫군이 있으니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66 저희가 파숫군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마태복음 27:65-66)

돌을 봉인하는 일은 흥미롭습니다. 돌이 암벽과 만나는 곳에 끈을 묶고 술기 위에 왁스를

부엌을 것입니다. 밀랍 봉인을 깨지 않고서는 누구도 돌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인장은 인증의 표시였습니다. 무덤이 점유되어 있고, 인장 뒤에는 로마의 권력과 권위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로마 인장을 훼손한 사람은 체포되어 처형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주장을 반대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의기소침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 제국의 인장을 뜯고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고 믿으라고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도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에 있는 큰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지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했겠죠.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의 기념물, 무덤 또는 묘비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보겠습니다.

5 And entering the tomb, they saw a young man clothed in a long white robe sitting on the right side; and they were alarmed.

The women are now at the tomb. The stone has been rolled aside and the entrance exposed. It's quite natural that they would want to look inside and see if Jesus' body is there. This is what they expected to find. As I mentioned previously the entrances to tombs were deliberately made small. The women therefore would have had to bend down in order to enter. As they do so they are surprised to see a young man sitting to their right. This is of course written from the women's perspective. They think they are looking at a "young man." In a moment we will see that this is not a young man but in fact an angelic being. It is at this point that again we should no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ospel accounts.

All four differ slightly. Matthew says an angel rolled away the stone and sat on it (Matt 28:2). Luke says there are two angels (but perhaps only one speaks) (Luke 24:4). John has Mary Magdalene returning to tell Peter and John. They go together to the tomb and find Jesus' linen cloths lying on the stone couch and the cloth that covered His face folded neatly next to it (John 20:6–7). There is no mention of them witnessing any angelic beings. However when Mary Magdalene arrives later she discovers two angels sitting on either end of the bench, as if guarding the place where Jesus' body had lain (John 20:12). These differences have led to sceptics claiming that the resurrection account is riddled with contradictions. This to them is a problem. Because the accounts differ they are therefore untrustworthy.

This is of course not the case. In fact if the accounts were all completely in harmony that would cause suspicion. It would appear that what we are reading was a collusion between the authors. They got together and agreed on what to include. Just like today, multiple witnesses of the same event give differing accounts. Eyewitness testimony can be notoriously unreliable. This is because we often miss-remember or miss-interpret what we have experienced through our senses. For example when survivors were questioned following the sinking of the Titanic in 1912 their accounts varied massively. There was considerable disagreement about what happened, and when it occurred. But despite the disagreements they all agreed on the most important point; the Titanic sank.

When it comes to the gospel writers we affirm that they were inspired by the Holy Spirit. So what can we say about their differing accounts? Let me make a couple of points.

Firstly we need to free ourselves from a simple "wooden" interpretation of what we are reading. What I mean is that in reality there was far more fluidity to what took place on this momentous morning. All of the women for example didn't travel en masse to the tomb, and then travel back together to Jerusalem. They split up, people went in different directions. These different groups paid visits to the tomb, possibly more than once.

Secondly, we need to appreciate that the gospel writers did not attempt an exhaustive narrative. It was not their intent to tell us every single detail regarding what happened or even in the correct

order that it happened. Let us not forget that as with the example of the Titanic I just gave despite the minor differences they all agree on the most important point; the tomb was empty. Let's get back to Mark's account.

How do we know that this young man was an angel? Mark doesn't tell us very much. It's highly probable that this spiritual being had a presence that instantly indicated he was not a normal man. Matthew tells us his countenance was like lightning (Matthew 28:3). Does this mean he had a glow or radiance about him? Whatever the case he looked different and special in some way. We also have the description of his clothing. He was wearing a **long white robe**. Matthew says it was white as snow. This white clothing was a symbol of purity and of fellowship with God. Or to put it more simply it was the clothing worn by heavenly beings.

As you probably know the word angel comes from the Greek word *angelos*. This word means “to send” or it can describe a “messenger – one sent to deliver a message.” The Hebrew word for angel is *melach* meaning “messenger.” Let us see then what message this angel has been sent to deliver.

5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지 않겠는가! 여자들이 그를 보고 놀라자

그 여자들은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의 시신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신이 그대로 있기를 기대하고 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덤 입구는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들어가려면 몸을 굽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른쪽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여자들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청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 자가 청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복음서 기록들 사이의 차이점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네 복음서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는 천사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말합니다(마 28:2). 누가는 두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아마도 그 중 혼자만이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누가복음 24:4).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렸다고 기록합니다. 그 제자들은 함께 무덤에 가서 돌 침상 위에 예수님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던 천이 단정하게 개켜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요한복음 20:6-7). 그들이 천사의 존재를 목격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두 천사가 마치 예수의 시신이 누워 있던 곳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의자 양쪽 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요한복음 20:12).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회의론자들은 부활 기록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문제이고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야기가 모두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면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야기가 모두 똑같다면 그것은 저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모하여 어떤 내용을 포함할 지 합의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여러 증인이 서로 다른 설명을 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경험한 것을 종종 잘못 기억하거나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이후 생존자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의 진술은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를 두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가장 중요한 점, 즉 타이타닉이 침몰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복음서 작가들의 경우,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서로 다른 기록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본문 구절에 대한 단순한 “일률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 말은 실

제로는 이 중대한 아침에 일어난 일이 훨씬 더 유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여인들은 한꺼번에 무덤까지 갔다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헤어졌고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들 다양한 그룹은 아마도 한 번 이상 무덤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서 기자들이 철저한 서술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주거나 그것이 일어난 정확한 순서까지 알려주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제시한 타이타닉의 예처럼 사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가장 중요한 점에 동의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청년이 천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가는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그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얼굴이 번개와 같았다고 말합니다(마 28:3). 이것은 그 주변에 빛이나 광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까? 어떤 경우이든 그는 어떤 면에서 다르고 특별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의 옷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길고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것이 눈처럼 희었다고 말합니다. 이 흰옷은 순결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이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 입는 옷입니다.

천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Angelos*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보내다”를 의미하고 “메신저 –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신저”를 의미하는 멜락 *melach* 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 But he said to them, “Do not be alarmed. You seek Jesus of Nazareth, who was crucified. He i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When we think of angels we often imagine chubby babies flying around with feathery wings. Angels are cute and adorable. Wrong! This is not how scripture presents them. They are frequently awe inspiring or terrifying and it's typical for angels to have to tell people not be afraid of them. This was the effect this angel, or angels had on these women. They were alarmed. The word alarmed here is from the Greek root word *ekthambeō* (ek-tham-bay-oh).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an mean "to be amazed," "to be terrified," "to be in wonder" or "to be in distress." Mark, the only gospel writer to use this word also uses it when he describes Jesu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as "greatly distressed" (Mark 14:33).

After allaying their fears the angel then rebukes them. They were at the tomb seeking the body of Jesus of Nazareth. Why were they looking for the living in a place reserved for the dead. Had they really forgotten so quickly what He had told them?

In using the term “Jesus of Nazareth” the angel seems to be emphasising the humble humanity of the Lord. Nazareth was not a notable place, it was not somewhere to be proud of. He also emphasises the fact that Jesus was crucified. Again this was a death associated with great shame and dishonour. So here had lain a humble man, from a inconsequential place, who had died a shameful death. But He was here no longer. Look, the angel tells them, this is where He had been, but now see that He has gone. Trust your senses, this is real. Note carefully what the angel says, he does not tell them that Jesus body had been moved or taken away but that He is risen. This is the greatest message in all of history. In this act a new order of existence is inaugurated. The resurrection is the triumphant and glorious victory for every true believer.

As believers we affirm that Jesus Christ died, was buried, and rose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inthians 15:3–4). The resurrection proves that Jesus is who He claimed to be. It demonstrates that God accepted Jesus’ sacrifice on our behalf. It shows us that God has the power to raise us from the dead. It serves as our guarantee that those who believe in Christ will not remain dead. That we just like the “first fruit” Jesus, will be resurrected into eternal life. What a glorious

truth that is. Let me just finish here with an important point.

The stone was not moved to allow Jesus to emerge from the tomb. In His resurrected body Jesus could pass through solid objects. In John chapter 20 Jesus enters the house where the disciples are staying behind closed doors (John 20:19). Rather, the stone was moved so that the human witnesses could enter and see the empty tomb with their own eyes. As we know from our own experiences when we actually see something first hand we are much more convinced than if we hear the news from someone else.

Let us see what other messages the angel has for these women.

6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자리이다.

우리는 천사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깃털 달린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통통한 아기를 상상합니다. 천사들은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천사를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종종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거나 두려움을 주므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천사가 이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놀라다 *alarm* 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어근 *ekthambeo*(ek-tham-bay-oh)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문맥에 따라 이 단어는 "놀라다", "무서워하다" 또는 "곤경에 빠지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유일한 복음서 저자인 마가는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심히 고민하셨다"(막 14:33)고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천사는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킨 후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은 왜 죽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서 산 자를 찾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빨리 잊어버렸던 걸까요? 천사는 “나사렛 예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님의 겸손한 인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유명한 곳도 아니었고 자랑할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십자가형은 큰 수치와 불명예를 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찮은 곳 출신이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한 겸손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계셨던 곳은 여기였지만 지금은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보는 것을 믿어라. 이것은 현실이다. 천사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주목하십시오. 그는 예수의 시신이 옮겨졌다거나 누군가 가져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행위에서 새로운 존재 질서가 시작됩니다. 부활은 참된 믿는자 모두를 위한 위대한 승리요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확증합니다(고전 15:3-4).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이 주장한 바로 그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은 채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우리도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영생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중요한 점을 하나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려고 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께서는 단단한 물체를 통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십니다(요한복음 20:19). 증인이 될 인간들이 들어가서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돌을 옮겼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서 소식을 듣는 것보다 실제로 직접 볼 때 훨씬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천사가 이 여성들에게 어떤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 But go, tell His disciples—and Peter—that He is going before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as He said to you.” 8 So they went out quickly and fled from the tomb, for they trembled and were amazed. And they said nothing to anyone, for they were afraid.

Having given the women a gentle rebuke the angel gives them a commission straight from God. They are to go and find the disciples and give them this wonderful news. It's interesting, and also heart warming to note that Peter is singled out. After his triple denial and subsequent falling away into despair he really needed to hear this news. He needed to know that He was still a part of this group. And that God still had a use for him. As we know Peter would go on to play a major par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early church.

The angel then reminds them of the promise Jesus made to them. In Mark chapter 14 verses 27 and 28 we read the following,

27 Then Jesus said to them, “All of you will be made to stumble because of Me this night,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28 “But after I have been raised, I will go before you to Galilee.”

There is something very satisfying when something comes full circle or ends up back at the point it started. For example before I left on my recent month long trip to Europe I stood for a moment in my doorway. I wanted to fix that moment in my memory and ask for God's protection for the trip. I took some time to focus on His goodness and ask that He would deliver me safely back to this point when the trip was over. When I returned I again stood in that same place and thanked God for His grace. My circle was complete.

What about the disciples. Galilee was a special place for them. It was their home and more significantly it was where they had first met and been chosen by Jesus. It was where He had commissioned them and where He had sent them out on a mission. Galilee had been where the revelation had begun and now they would return there to finally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fullness of the revelation. In the sense the circle was being closed.

The women are to pass on the message that the disciples are now to make their way back to Galilee where Jesus will meet them. This brings us to verse 8, the reaction of the women to receiving this news. Mark tells us that they fled from the tomb in great fear and said nothing to anyone about what they had seen. Their reaction of fear and awe which inspired trembling is perhaps understandable. This is a natural human response to encountering the supernatural. How though do we reconcile Mark's account of the women's response with Matthew's. In Matthew 28 verses 8 to 10 we read;

8 So they went out quickly from the tomb with fear and great joy, and ran to bring His disciples word. 9 And as they went to tell His disciples, behold, Jesus met them, saying, “Rejoice!” So they came and held Him by the feet and worshipped Him. 10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ethren to go to Galilee, and there they will see Me.”

One way to think about it is to consider more carefully the women's response and reaction to the angel's news. We might read it to mean that they were dumbstruck with fear and went into hiding after telling no one. We know this cannot be the case because the disciples heard the news. Matthew tells us this. So maybe what Mark means is that they were amazed by the news, it literally had them trembling with excitement. Such a reaction is found frequently in Mark in the positive sense of denoting the awe and wonder that Jesus elicited. So the women rushed off to find the disciples not stopping to speak to anyone else on the way. Or to put it more simply nothing would stop them in fulfilling their commission.

Next week we will conclude our study of Mark's gospel. Many scholars believe that the gospel ends here at verse 8. I will spend some time next week, Lord willing talking more on the ending to Mark.

If it does indeed end here it is an oddly abrupt conclusion. Even with the potential explanation I have just given its a curious way to end. We are left in a mix of confusion, fear, and hope.

But when you think about it isn't this where we as believers live today. We have not seen Christ with our own eyes, but we have been told that He lives. We have been promised that we will meet Him, but that time has not yet arrived. And in the meantime, as we wait in hope we are to perform the task, the commission that He has given us. That of sharing the gospel. So in many ways are we not just like these women fleeing from the tomb. Trembling with fear and excitement and enthused with a passion to share the gospel. I certainly hope that is the case.

7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알려 주어라.” 8 여자들은 무서워 떨며 정신 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겁에 질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천사는 여자들을 부드럽게 꾸짖은 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가서 제자들을 찾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절망에 빠진 그는 꼭 이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그룹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천사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가복음 14 장 27 절과 28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라 ,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어떤 일이 원점으로 돌아오거나 시작된 지점으로 되돌아갈 때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최근 한 달 간의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문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여행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그분의 선하심에 집중하고 여행이 끝나고 저를 이 지점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돌아와서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원 circle 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는 그들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집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선택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선교를 위해 파송하신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계시가 시작된 곳이었고 이제 그들은 마침내 계시의 충만함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이 닫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갈릴리로 그들이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8 절은 이 소식을 접한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마가는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무덤에서 도망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떨림을 불러일으킨 그들의 두려움과 경외감은 이해할 만할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인들의 반응에 대한 마가의 설명과 마태의 설명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 장 8 절부터 10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8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

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것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은 천사의 소식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을 더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그들이 두려움에 넋을 잃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가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그 소식에 놀랐다는 것, 문자 그대로 그들을 흥분으로 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은 예수께서 불러일으킨 경외심과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의미로 마가복음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제자들을 찾으러 달려갔고 길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멈추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 것도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여기 8 절에서 끝난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마가복음의 결말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이상하게도 너무 갑작스러운 결론입니다. 동시에 흥미로운 결말입니다. 우리는 혼란과 두려움, 희망이 뒤섞인 상태에 남겨집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살고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우리는 무덤에서 달려가는 이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설렘으로 떨며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God often chooses the lowly and despised

If you were a Jew in Jesus day and you wanted to make up the resurrection story how might you go about it?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would be the validity of the witnesses. Who would you choose to discover the empty tomb? You would obviously select the most reputable and respected members of society. So who might you pick? A member of the Sanhedrin, a priest or a scribe. You'd select an important man. You would never pick a woman. Women were not considered to be reliable witnesses. They were looked down upon and despised in that culture. This is of course further evidence that the gospel accounts are accurate and true. It was indeed women who first discovered the empty tomb.

This should not surprise us. Throughout the Bible God frequently chose the lowly and the insignificant to accomplish His work. Take Moses for example, a man terrified about public speaking. He was God's choice to lead a nation. What about Elijah a man who fought depression. God used Him mightily. What about the disciples, a number of whom were just lowly fishermen. These humble men would go on to transform the world through their tireless efforts. Or what about the woma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God blessed their faithful devotion in making them the first to hear the wonderful news of Christ's resurrection. God delights in taking the people the world looks down upon and transforming them. Through His power He turned them all into mighty servants who worked to further His glory.

What does this mean for us? We are just normal everyday people. None of us is exceptionally gifted or talented. We may not be in positions where we are despised by people but neither are we lauded or acclaimed. But that does not mean that God cannot use us. God can take each of us and transform us through His power into something useful that benefits His Kingdom. In order for God to use us like this it requires that we fully surrender ourselves to His will. We need to seek to obey His commands. Then, and only then can He turn lowly and insignificant people like us into mighty warriors for the faith.

당신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었고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증인의 타당성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기 위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사회에서 가장 평판이 좋고 존경받는 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산헤드린 의원, 제사장, 서기관. 당신은 중요한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여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은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그 문화에서 무시되고 멸시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서의 기록이 정확하고 사실이라는 추가적인 증거입니다.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놀라서는 안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증에 시달렸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 중 상당수는 단지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비천한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니면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심으로 그들의 신실한 헌신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 그들 모두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강력한 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외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위치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칭찬을 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분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왕국에 유익이 되는 유용한 존재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용하시려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분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 Only in the risen Christ is sin overcome

If you are diagnosed with high blood pressure there are a number of options you can take. You might tackle the issue by dieting, and trying to lose weight. You may find eating a healthier, more balanced range of foods and cutting down on salt (sodium) helps. It is also a good idea to do more exercise and limit the amount of alcohol you drink. You may however find that none of these things help and therefore you are forced to take medication. My point is that there are a range of treatment options available.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sickness of sin there is only one solution. You might try to stop sinning, good luck with that! You might try living in a cave on a lonely mountain and therefore reducing your opportunities to sin. That might be partially effective but it won't completely stop sin. You could try blinding yourself, or cutting off bits of your body that lead you into sin. That won't be effective as the people who tried such drastic action found out. The only solution to sin is the risen

Lord.

The Lord Jesus Christ once and for all defeated the power of death and Satan on the cross. Because Jesus Christ conquered death it means that believers have also been granted victory over death. Jesus was the first person in all of history to die and be raised to eternal life. Others were, through God's power raised from the dead but this was really only a resuscitation. They later died again. Not so Jesus, and now because of what He accomplished we too will rise again into eternal bodies.

So if you have not yet given yourself to Christ now is the time to do so. All it requires is that you confess your sin. Go to God and tell Him that you agree with His assessment of you as a wretched sinner. Then you must repent or turn away from your sin. This does not mean that you will ever in this lifetime attain sinless perfection. You will never be sin free until glorification. It does mean that sin repulses and shames you. It also means that when you do sin you take it to God, confess and seek His forgiveness. Then you must put your faith and trust in Christ alone. You must trust that what He achieved on the cross is sufficient for your salvation. If you have not done this then do not delay. If you know people close to you who have not done this then share this news. Just like the women in our story today flee with trembling excitement to share the glorious gospel message.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다양합니다.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소금(나트륨)을 줄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음주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 약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요점은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질병은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죄를 안지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당신은 산 속 동굴에 살면서 죄를 지을 기회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을 죄로 이끄는 신체 일부를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감한 행동에 지친 사람들이 이미 알듯이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영생으로 살아나신 역사상 최초의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나 이것은 실제로는 소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성취하신 일로 인해 우리도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직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을 비참한 죄인으로 평가하시는 그분의 평가에 당신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애에 죄 없는 완전함을 달성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죄를 혐오하고 그것을 수치스러워하게 됩니다. 또한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믿음과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당신의 구원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하지 않은 가까운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이 소식을 공유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이야기에 나오는 여성들처럼 영광스러운 복음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떨리는 흥분으로 달려가십시오.

